2027학년도 광운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논술우수자)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두 문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7 쪽(표지 제외)이며, 문제와 배점·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50점, 750±50자)　　문제 2 (50점, 750±50자)
3.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칸에 작성합니다.
4.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광운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광운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경제'라는 말은 흔히 돈을 벌고 모으는 일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 말에 해당하는 서양어의 뿌리인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본래 '집안 살림을 꾸려 가는 일'을 뜻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재화를 얻는 활동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그가 구분한 ㉠**'살림살이를 위한 획득'과 '돈벌이를 위한 획득'**은 겉으로는 모두 재화를 얻는 활동이지만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발을 예로 들었다. 신발은 신는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물건과 바꾸는 데 쓸 수도 있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발을 주고 식량을 받는 것도 신발을 쓰는 한 방법이지만, 신발은 본래 바꾸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신으려고 만든 것이다. 처음의 물물 교환은 각자 넘치는 것을 내주고 모자란 것을 얻어 살림의 부족을 채우는 일이었으므로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곳과 거래하게 되면서 무겁고 들고 다니기 어려운 물건 대신 화폐가 쓰이게 되자, 교환은 차츰 필요를 채우는 일에서 이익을 남기는 일로 바뀌어 갔다.

살림살이를 위한 획득은 집안과 공동체가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일이다. 사람은 먹고 입고 머물 곳이 있어야 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화를 얻는 일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그런데 이 획득에는 저절로 한계가 있다. 그 목적이 좋은 삶에 있으므로 좋은 삶에 필요한 만큼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때 재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단이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그것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부란 좋은 삶에 쓰이는 도구들의 모음이며, 어떤 기술의 도구도 그 수와 크기에 끝이 없지 않듯 살림에 필요한 부에도 끝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살림을 잘 꾸리는 사람은 더 많이 쌓는 데보다 가진 것을 알맞게 쓰는 데 마음을 둔다.

반면 돈벌이를 위한 획득은 화폐가 생기면서 나타났다. 처음에 화폐는 필요한 물건을 서로 바꾸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차 물건을 사고팔아 더 많은 돈을 남기는 일 자체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 획득은 돈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끝이 없다. 의술이 건강을 끝없이 추구하듯 돈벌이에 몰두하는 사람은 돈을 끝없이 늘리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에만 마음을 쓰며, 그 욕망에 한계가 없으므로 욕망을 채워 줄 수단도 한없이 바란다고 보았다. 그가 가장 부자연스러운 돈벌이로 꼽은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었다. 화폐는 교환을 위해 생겨났는데, 이자는 돈이 돈을 낳게 하여 화폐를 본래의 쓰임에서 가장 멀리 떼어 놓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교환이나 화폐를 무조건 나쁘게 본 것은 아니다. 그는 교환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 공동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화폐가 서로 다른 물건의 가치를 견주게 해 교환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문제는 수단이어야 할 돈이 목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 묻지 않게 되고, 돈을 모으는 일 때문에 정작 좋은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 이를테면 벗과의 우정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 정신의 여유를 잃기 쉽다. 더구나 돈벌이에 몰두하는 사람은 용기나 의술처럼 본래 다른 목적을 지닌 능력까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의 구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소유하는지, 얼마만큼이면 충분한지를 되묻게 한다.

(나)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중략〉

"아저씨…… 경제란 것은 돈 모아서 부자 되라는 것 아니오? 그런데, 사회주의란 것은 모아 둔 부자 사람의 돈을 뺏어 쓰는 것 아니오?"

"이애가 시방!"

"아—니, 들어 보세요."

"너, 그런 경제학, 그런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마나, 경제란 건 돈 많이 벌어서 애껴 쓰구 나머지 모아 두는 게 경제 아니오?"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루 쓰는 경제고, 경제학이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다를 게 무어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지요."

"아니란다. 혹시 이재학(理財學)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근리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소. 경제 못 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 년이나 했으니 그게 무어란 말이오?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구두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인제 보니깐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이거 봐요 글쎄. 단박 꼼짝 못하잖나. 암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육조를 배포했어도 그렇다니깐 글쎄…….

〈중략〉

"아저씨두 맘 달리 잡수시오."

"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걱정 안 되시우?"

"날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네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어떻게?"

"이만저만한가요!"

또 한바탕 주욱 설명을 했지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보아요.

"너두 딱한 사람이다!"

"왜요?"

"……"

"아—니, 어째서 딱하다구 그러시우?"

"……"

"네? 아저씨?"

"……"

"아저씨?"

"왜 그래?"

"내가 딱하다구 그러셨지요?"

"아니다, 나 혼자 한 말이다."

"그래두……."

"이애?"

"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오?"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어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어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어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아저씨는 아직두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애?"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네."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네."

채만식, 「치숙」

* 다이쇼: '주인'을 이르는 일본어. 화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점원이다.

* 내지인: 일제 강점기에 일본 본토 사람을 이르던 말.

(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다. 실물 재산을 아무리 쌓아 두어도, 그와 함께 남의 노동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재산은 주인에게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기름진 넓은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땅의 자갈 속에는 금맥이 풍부하고 목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소 떼가 있으며, 집과 정원과 쓸모 있는 물건으로 가득 찬 창고까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하인을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가 하인을 둘 수 있으려면 이웃의 누군가가 가난하여 그의 금이나 곡식을 필요로 해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하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손수 빵을 굽고, 손수 옷을 짓고, 손수 땅을 갈고, 손수 양 떼를 쳐야 한다. 그의 금은 그 땅에 널린 다른 누런 조약돌만큼이나 쓸모가 있을 뿐이다. 그는 다 먹을 수 없으니 창고의 물건은 썩고 말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더 많이 입을 수도 없다. 그는 평범한 편안함이라도 얻으려면 고되고 거친 노동의 삶을 살아야 하며, 결국 집을 수리하지도 밭을 갈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야생 소 떼에 짓밟히고 궁전의 폐허가 뒹구는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의 몫인 오두막과 텃밭에 만족해야 할 것이며, 그 황무지를 '자기 것'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조롱하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도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종류의 부를 그리 기뻐하며 받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사람들이 부(富)라는 이름으로 진정 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다. 가장 단순한 뜻으로는 하인과 상인과 예술가의 노동을 자기 이익을 위해 얻어 내는 힘이고, 더 넓은 뜻으로는 나라의 많은 사람을 여러 목적으로 이끄는 권한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힘은 그것이 미치는 사람들이 가난할수록 커지고, 자기만큼 부유한 사람이 많을수록 작아진다. 음악가가 가난하다면, 그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인 동안에는 적은 보수로도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두셋이 되면 그는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을 위해 노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부유해지는 기술'**이란 단지 자기를 위해 많은 돈을 쌓는 기술이 아니라, 이웃이 덜 갖도록 꾸미는 기술이기도 하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불평등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 나라 전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추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그러한 불평등이 반드시 이롭다는 성급하고 터무니없는 가정이 정치경제학에 관한 대중적 오류 대부분의 뿌리에 놓여 있다. 불

평등이 이로운가는 첫째로 그것을 이룬 방법에, 둘째로 그것을 쓰는 목적에 달려 있다. 부당하게 이루어진 부의 불평등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라를 해치고, 부당하게 쓰이면 존재하는 동안 나라를 더욱 해친다. 그러나 정당하게 이루어진 부의 불평등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고귀하게 쓰이면 그 존재로 나라를 더욱 돕는다.

〈중략〉

따라서 생산을 참으로 시험하는 것은 소비의 방식과 결과이다. 생산은 힘들여 만든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게 소비될 수 있는 물건에 있다. 나라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노동을 부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길러 내는가이다. 소비가 생산의 목적이듯 생명은 소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하나의 커다란 사실을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한다. ㉢**생명 외에 부는 없다**. 여기서 생명이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모든 힘을 포함한 생명이다. 가장 부유한 나라는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을 가장 많이 길러 내는 나라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생명의 기능을 최대한 완성하고, 몸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장 넓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기이한 정치경제학이라 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경제학이다.

'고귀하고 행복한 사람을 가장 많이.' 그러나 고귀함이 많은 수와 함께할 수 있는가? 그렇다. 함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수에 꼭 필요한 것이다. 생명의 최대치는 오직 덕의 최대치로만 이를 수 있다.

존 러스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라) 부를 늘리려는 개인의 욕구는 오랫동안 탐욕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경제학은 그것이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더 싸고 더 좋게 만들려고 애쓴다. 이 과정에서 분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며, 일자리와 소득이 생겨난다. 또한 부의 추구는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준다.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맡거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를 얻을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그렇게 쌓인 부는 다시 투자되어 더 많은 생산으로 이어진다. 근대 이후 시장 경제가 발달한 많은 나라에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난 데에는 이러한 부의 추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부의 추구가 공정한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점이나 속임수처럼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막는 것은 법과 제도의 몫이지 부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규칙이 공정하다면 개인이 부유해지려는 노력은 남의 몫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서로의 처지를 나아지게 하고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일이 된다.

(마) 제나라 선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맹자가 말하였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 말하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한결같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진실로 한결같은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치우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진 뒤에 쫓아가 형벌을 내린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줄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넉넉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기에 넉넉하게 하여, 풍년에는 한 해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 뒤에 백성을 이끌어 선(善)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백성이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되,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기에 부족하여, 풍년에도 한 해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죽음에서 벗어나기에도 힘이 모자랄까 두려운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닦겠습니까?

왕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다섯 묘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된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닭과 돼지와 개를 기를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으면 일흔 살 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 묘의 밭에서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런 뒤에 학교의 가르침을 정성껏 베풀어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거듭 일깨우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맹자』, 「양혜왕 상」

[문제 1] ㉠으로 (나)의 아저씨와 조카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을 (다)와 (라)의 관점을 대비시켜 설명한 다음, ㉢의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을 (다)와 (마)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문제 2]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래된 주택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동은 골목이 좁아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지은 지 수십 년이 넘은 집들은 비가 새거나 벽에 금이 가 있다. 주차할 곳이 없고 하수도가 낡아 여름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된다. 빈집이 늘면서 밤길이 어둡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도 많아졌으며, 젊은 세대는 불편한 동네를 떠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을 허물고 새 아파트 단지와 도로, 공원을 짓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낡은 집의 소유주들은 새 아파트를 얻어 재산 가치가 오르고, 새로 들어설 상가와 공원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준다. 도시 전체로 보아도 낙후된 지역이 정비되면 세금이 늘고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사 기간에는 건설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 이사 오는 주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돈다. 낡은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주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일일 수 있다. 재개발은 많은 사람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으로 이끄는 **㉠도시의 발전**이다.

(나) 재개발이 결정되자 ○○동 골목에서 삼십 년 동안 세를 들어 살아온 김 씨 할머니는 이사 갈 곳을 찾아 나섰다.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게 되었지만, 세입자*인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얼마 안 되는 이주비뿐이었다. 그 돈으로는 근처 어디에서도 비슷한 방을 구할 수 없었다. 재개발 소식이 퍼진 뒤로 주변 동네의 집세까지 오른 탓이었다. 할머니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이웃을 사귀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결국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먼 동네의 반지하 방으로 옮겼고, 날마다 들르던 경로당과 이웃들과도 멀어졌다. 작은 가게를 하던 이웃들도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집을 가진 주민 가운데에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해서 입주권을 팔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재개발이 끝난 뒤 원래 살던 주민 가운데 새 단지에 다시 들어와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새 아파트와 공원의 혜택은 대부분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가장 오래 그 동네를 지켜 온 사람들은 동네 밖으로 밀려난다. 공사가 진행되는 몇 년 동안 동네의 이웃 관계도 뿔뿔이 흩어진다. 이처럼 재개발은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원주민의 내몰림**이다.

* 세입자: 돈을 내고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사는 사람.

* 권리금: 상가를 넘겨받는 사람이 그 자리의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로 이전 상인에게 주는 돈.

* 분담금: 재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가운데 조합원 각자가 부담하는 돈.

(다) 공리주의는 행위나 제도의 옳고 그름을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곧 사람들의 행복을 얼마나 늘리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 이론이다. 벤담은 인간이 본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보고,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더 많은 쾌락을 낳는 행위를 옳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판단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았다. 이때 한 사람의 행복은 누구의 것이든 똑같이 하나로 계산된다. 벤담은 이를 '각자를 하나로 계산하고, 누구도 하나 이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사회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고통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정책이 일부 사람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행복의 총량이 손해보다 크다면 그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이처럼 결과를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오늘날의 정책 분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밀은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아 벤담의 이론을 수정하였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리는 것이 옳음의 기준이라는 생각은 그대로 이어받았다.

* 공리(功利): 공로와 이익. 여기서는 행위가 가져오는 유용성이나 행복을 뜻한다.

* 쾌락: 즐겁고 만족스러운 느낌. 벤담은 쾌락의 강도·지속성·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그 양을 잴 수 있다고 보았다.

(라) 롤스는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을 정의라고 보았다. 그는 공리주의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린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공리주의는 행복의 총량에만 관심을 두어, 그 행복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각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성을 지닌다.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능력, 사회적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회의 원칙을 고른다면 어떤 원칙에 합의할지를 물었다.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차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는 누구도 자신에게만 유리한 원칙을 고를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합의된 원칙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처지를 나아지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떤 제도가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 제도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제도를 다시 살펴보는 사회이다.

(마)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단지 위치와 넓이로 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과 관계가 쌓이면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된다.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의 방과 처음 묵는 여관방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골목에서 날마다 마주치던 이웃, 아이들이 뛰놀던 길, 오래 단골로 드나든 가게는 그곳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루는 일부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이 어떤 관계에도 매이지 않은 채 홀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지역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라고 본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자 어느 동네의 주민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랜 세월 쌓여 온 장소와 공동체를 허무는 일은 건물을 바꾸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곳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루던 삶의 바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장소를 잃은 사람은 살 곳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

[문제 2] ㉠과 ㉡을 각각 (다)와 (라)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마)의 관점에서 ㉠을 비판하시오. (50점, 750±50자).

〈끝〉